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금년 드라이벌크 시장 긍정적 신호

예상외의 변수만 없다면 2021년도 벌크선 시장은 2020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브라질 댐 붕괴 사고와 COVID-19와 같은 특이상황이 벌어진 지난 2년과 달리 2021년 상반기 운임은 정상에 가까워질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Vale의 철광석 수입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이 다시 한 번 드라이벌크 시장의 추진 동력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Fincantieri, Chantiers 인수 시한 연기

이탈리아 조선 그룹 Fincantieri의 Chantiers de l'Atlantique 인수 시한이 1개월 더 연장되었다고 보도됨. 지금까지 인수 시한이 여러 번 연장되었으며,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총국이 제기한 독점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박뉴스)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수개월 더 걸릴 것"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수개월 더 기다려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이 많이 발생했고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선박뉴스)

한국조선해양, 지난해 수주액 100억 달러...목표 91% 달성

한국조선해양의 2020년 누적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정된 수주목표의 91%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척당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인 LNG선을 21척이나 수주했으며,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27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를 157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조정한 바 있음. (KBS)

현대로템, K계열 전차·장갑차 원격·무인 운용 기술 개발

현대로템이 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투체계의 원격·무인 운용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과제와 제2과제를 수주했으며, 총 152억원 규모라고 보도됨. 두 과제 모두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철강-조선업, 후판 가격 협상 돌입... 인상 vs 동결 두고 기싸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빅2 철강사와 완성차, 조선사들이 지난달 열연강판과 후판 가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됨. 철강업계는 지난해 조선사들이 수주 랠리를 기록한 만큼 원자재 가격 인상분 반영하겠다는 목표라고 보도됨. 반면 조선업계는 상반기 가격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됨. (디지털타임스)